

기계 미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무빙 타이포그래피에서의 조형적인 우연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tuity in moving typography and machine aesthetic.

김덕훈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Gim, Duk-hoon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ey words: moving typography, fortuity, machine aesthetic.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마우스의 움직임만으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였고, 예상치 못한 우연적인 효과의 이용도 빈번한 일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우연성의 효과에 의한 조형미의 극대화를 무빙 타이포그래피의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계미학에서의 조형적 특성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의 우연성

2-1. 언어적인 우연성

타이포그래피에 의해 표현되는 시각효과는 근본적으로 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적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안상수는 이러한 활자의 성질을 '활자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활자성은 언어와 활자 사이의 관계이며, 활자라는 재질과 언어로서의 소리, 그림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¹⁾ 타이포그래피의 관건은 이 활자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활자가 본질적으로 언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에 있어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문자의 본질적인 기능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타이포그래피는 문자가 갖는 이러한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활자들의 1차적인 배열은 타이포그래피의 의도가 아닌 그 활자가 담고 있는 언어의 어휘와 문법이라는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타이포그래피적 조형에는 타이포그래피의 조작이 아닌 순수하게 그 활자들이 담아내야하는 의미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차원이 존재하게 된다. 타이포그래피적 조형의 이러한 특성은 타이포그래피의 의지 밖의 문제라는 의미에서 우연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우연성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보다 의도적이고, 표현적인 우연성의 효과와 구별하여 언어적인 우연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2. 표현적인 우연성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더 이상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활자의 이상적인 배열에 머물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활자는 조형의 요소로써 사용되어 글줄 속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보다 직관적인 의미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문자의 의미를 넘어 활자가 가진 형태자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보다 창의적인 타이포그래피로 새로운 의미들을 표현해내는 작업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과정에서 활자성에 내재된 수많은 조형적인 가능성들은 우연하게 '발굴'되게 된다.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훌륭한 결과물들이 얻어지게 된다.

'에밀 루더(Emil Ruder)'는 그의 저서 「타이포그래피」에서 '자연성과 우연성'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포그래피에서의 우연성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²⁾ 그가 말하는 우연성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해 볼 수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불완전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우연성이다. 이러한 우연성은 낱 활자를 이용하여 조판을 하던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다. 인쇄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우연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더 이상 이러한 의외의 효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술의 발달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우연성의 새로운 차원을 가능케 했다. 에밀 루더가 새로운 기술로서 예를 든 사진식자 역시 이미 과거의 기술에 불과하다. 퍼스널 컴퓨터와 함께 발전한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타이포그래피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활자들의 자유로운 변조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조작과 변조의 용이함은 더 많은 타이포그래피적 실험이 시도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우연적인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연성의 대표적이 예는 중첩에 의한 효과이다. 글자와 글자가 겹침으로써 제작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우연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조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인 시도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연성의 효과를 필자는 연구자는 표현적인 우연성이라 정의하겠다.

3. 무빙 타이포그래피에서의 우연성

연구자는 무빙 타이포그래피가 갖는 중요한 특징으로 '우연성'의 극대화를 제시하고자한다. 무빙 타이포그래피는 활자의 움직임을 다룬다. 바로 시간과 공간에 의해 파생되는 움직임이 바로 무빙 타이포그래피의 핵심개념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연속성으로서의 움직임이 아닌 활자들이 만들어내는 서로 다

1) 안상수(1995). 「타이포그래피적 관점에서 본 이상 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7쪽.

2) 에밀루더. 안상수 옮김(2001). 「타이포그래피」. 안그라픽스. 162쪽.

른 수많은 조형적 '사건'들의 시간적인 배열이라는 차원에서 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접근한다. 이러한 무수한 조형적 사건들로부터 우연성의 효과가 창출된다. 여기에서도 우연성에 대한 근거는 본질적인 기능의 우위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무빙 타이포그래피도 역시 영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연속적인 움직임이라는 기본적인 의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수한 조형적 '사건'들은 우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동영상이 만들어내는 우연성의 효과는 한마디로 폭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계미학에 있어서의 우연성

기계미학(machine aesthetic)이란 기계의 구조나 외형에서 현대적인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미학적 원리로 삼으려는 입장을 말한다.³⁾ 기계미학은 어떠한 사조나 운동이기보다는 기계를 미적 감수성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려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의식의 근원에는 산업 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이 있었다. 처음엔 기계의 놀라운 생산력과 엄청난 힘이 사람들에게 경외와 찬양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후 이 시대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형상으로서의 기계는 예술가들에게 미적인 요소로서 수용되었고, 기계적인 형태는 그들의 미감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기계적인 감수성은 20세기의 여러 예술사조와 여러 예술 분야에 침투하게 되어 미래파,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키네틱 아트 등에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산업디자인이나 건축에서 기계미학의 영향은 기능적인 형태를 부수적인 장식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 기계적인 형태는 곧 기능 그 자체이다. 이와는 달리 많은 경우에 기계적인 형태는 기능과 관계없이 미적인 원리로서 차용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기계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적인 대상의 외형적인 모방이나 기능에 대한 허구적인 암시로부터 만들어진다. 즉, 기계적인 형태는 근본적으로 기계가 갖는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계미학은 그것이 기계의 외형만을 미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요컨대 기계미학적인 조형물은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한 조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의외의 아름다움이 탄생한다. 즉 기능을 목적으로 한 기계로부터 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계 미학은 우연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가 갖는 또 하나의 특성은 바로 역동성, 곧 움직임에 있다. 역동성은 미래파에게 있어 중요한 작품의 소재가 되었을 만큼 기계미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계의 운동은 끊임없이 그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계속해서 기계 특유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기능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의 운동이 예기치 않은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우연성으로 볼 수 있다. 곧, 기계의 운동이 우연성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조영제 외(1994). 『디자인사전』. 안그래픽스. 97쪽.

5. 기계 미학과 무빙 타이포그래피의 비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계 미학은 기계의 본래적 존재 가치인 기능성과 기계가 갖는 물질적 특성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활자성은 언어와 활자사이의 관계이다'라는 명제와 닮은꼴을 이룬다. 타이포그래피는 언어의 전달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기능체인 활자로부터 아름다움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계미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에서 정의한 바 있는 언어전달 기능이라는 기본적 제한조건으로부터 파생되는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의 '언어적 우연성' 역시 기계 미학적인 우연성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계의 운동에 의한 우연적인 아름다움은 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의한 우연성의 효과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우리는 운동이 만들어내는 우연적인 기계 미학의 전형을 라즐로 모홀리나기의 <빛-공간 변조기>에서 목격할 수 있다. 모홀리나기가 엔지니어와 금속공의 도움을 받아 8년 만에 완성한 이 작품은 철판 등의 산업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움직임을 동반한 일종의 키네틱 조각이다.⁴⁾ 또한 모홀리나기는 변조기를 이용하여 <빛 설치 흑백회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는 변조기에 빛을 비추어 생기는 그림자들의 움직임을 화면에 담은 것으로서, 기계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우연적인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작품에 기계 미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기계 미학적인 우연성속에서 현대의 무빙 타이포그래피 영상 속에 나타나는 우연적인 효과들과의 유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기계가 글자들로 바뀌어졌을 뿐이다.

곧 우리는 '기능의 추구에 따르는 우연성의 효과'를 매개로 하여 무빙 타이포그래피를 기계 미학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5. 결론

타이포그래피에는 언어의 전달이라는 문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적 제한 조건으로부터 파생하는 언어적인 우연성과 예상치 못한 조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인 시도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표현적인 우연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무빙타이포그래피의 경우 연속적인 움직임의 추구라는 새로운 기능적 조건하에서 활자들의 무수한 변화 과정을 통해 폭발적인 우연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언어의 전달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기능체인 활자로부터 아름다움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계의 구조나 외형을 미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기계미학의 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미학적인 작품들에서도 기능의 추구로부터 파생되는 우연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무빙 타이포그래피는 움직임에 의해 생산되는 우연성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기계 미학적인 예술작품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박신의(2002).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라즐로 모홀리나기』. 디자인하우스. 61쪽.